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준비 속도 낸다

### 광주시, 단계별 대응... 행정공백 방지 전남도·행안부, 대민 서비스 등 논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이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중심으로 법적 정비, 재정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핵심 통합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기정 광주시장 주재 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통합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3일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법적 정비, 재정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 시장은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통합 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3일 오전 시청 집무실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법규 약 2천5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특별시 운영에 걸맞은 단일 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시행령 78건의 초안을 마련해 현재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148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재정 분야에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 현황을 정리 점검해 통합 예산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와 보태e 등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작업을 추진해 예산 집행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기반시설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공인 약 2천600개와 행정 공부 72종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 및 안내표지판 등 1만6천여개 시설물에 대한 정비 목록을 확정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광주김지타운에서 ‘전남-광주 농성부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양 시·도 실·국별 실무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 과제 등을 논의할 계

획이다.

전남도도 이날 도청에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대민서비스와 전산망 통합 등 핵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과 천준호 행안부 출범지원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가동해야 할 대민서비스와 통합 행정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통합 로드맵 수립과 핵심 과제 가이드라인 마련,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전남도는 최근 확대 개편한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중심으로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통합 실무준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현황 전수조사와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은 통합 준비 가이드라인 제시와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두 시·도 통합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직·인사 등 행정통합 관련 사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정책협의체(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 김영록·강기정 “통합특별시 출범 끝까지 협력”

### 金, 광주시청 공식 방문 30분 환담

### 姜 “통합 제안했으니 마무리 잘해야”

### 배석자 없이 10분간 별도 독대 관심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처음으로 광주시청을 공식 방문해, 3층 시장 집무실에서 강기정 시장, 고광안 행정부시장, 김영문 경제부시장과 함께 환담했다.

김 예비후보와 강 시장은 ‘박창환 전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최근 기획재정부 총괄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겨 통합특별시의 국비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과거 통합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예비후보는 “제가 통합을 제안하자 강 시장께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여 정말 신속하게 통합을 이뤄냈다”며 “전남과 광주가 아니면 그 어느 지역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이어 그는 “강 시장님이 아니었으면 결코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도 “김 예비후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 역시 주변에 말을 자주 한다”며 “최근 전남을 돌아다녀 보니 광주의 장점과 전남의 장점을 잘 엮어내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강 시장은 또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이 모두 통합이 어려워진 것을 보면 광주와 전남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도 덕담을 주고 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통합은 시장·도지사가 손을 맞잡고 만들어 낸 역사적인 쾌거”라며 “선거 과정에서도 (이를 잊지 말고) 상호 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시장도 “김 예비후보가 시작했으니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와 강 시장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끝까지 특별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두 사람은 30여분간의 공개 면담 뒤 10여분간 배석자 없이 별도

로 독대한 것으로 알려져 대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재정 기자

### ▶1면 “내가 적임자”에서 계속

마지막 연설자로 나선 신정훈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서 통합특별법을 설계하고 행정·재정·산업 특례를 보완하며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강조하며 “내 삶이 좋아하는 특별시, 광주·전남을 신남방 경제 중심도시이자 시민 주권 정부 모델로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신 의원은 “전남 농촌과 광주 도시가 서로 보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업과 첨단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지역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농촌과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은 19-20일 예비경선, 4월3-5일 본경선, 4월12-14일 결선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예비경선에 앞서 17-18일 조별 TV 토론, 본경선 전에는 권역별 정책대심원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 전남도, 특별시 출범 대응 수시인사

전남도는 ‘전남광주행정통합준비실무단’을 신설하는 등 16일자로 국장급(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명단 18명 인사 규모는 국장급(3급) 2명, 준국장 및 과장급(4급) 6명, 팀장급(5급) 14명, 6급 이하 80명 등 총 106명이다.

승진 인사는 리더십, 정책판단력 및 개인별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 업무 성과, 경력 등을 종합 반영해 국장급 2명, 과장급 8명, 팀장급 2

3명, 6급 이하 57명 등 총 90명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행정통합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신설해 조직 인사 재정 법규정비와 각종 행정시스템 및 도로표지판 정비에 이르기까지 통합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경과제와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AI산업과, 화학철강산업과 등을 TF에서 정식 직제화했다. /김재정 기자

## 광주 시내버스 요금 6월부터 250원 오른다

10년간 동결됐던 광주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안은 현재 성인 교통카드 요금 기준 1천250원을 1천5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이후 1천250원으로 동결돼 전국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서울·인천·대구·대전은 1천500원, 부

산은 1천500원 수준이다. 광주시는 유가 급등, 인건비 상승, 준공영제 등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적정 요금 인상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상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변은진 기자

### 광주매일신문

“좋은 생활사랑보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점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팩스용지
- 레이저 및 잉크jet 프린터 • 전선스모뎀
- 레이저(테너/드럼) • 복사용지 • 각종인크류
- 카트리지 • 판매 • 임대 • A/S

T.062)375-5880

###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 1) 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 2) 양산동 주거1층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만이면 바로 계약됩니다

[결제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